

운영위원회 회의록

- 일 시 : 2019년 11월 4일(월) 11:00-13:00
- 장 소 :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층 강당
- 참 석 인 원
장재승 관장 (위원장), 박상신(운영위원), 이영민 교수(운영위원),
이명호의원(운영위원), 김정민 실장(간사) 총5명
- 회 의 안 건
 -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현황 보고
 - 2019년 3분기 자활근로 사업 및 센터 주요 진행사항 보고
 - 2019년 추경예산 보고
- 기 타 안 건
 - 자활사업 및 센터 홍보 방안

□ 개 회 : 각 위원님들 소개하며 각자의 안부를 묻고 감사 인사말을 약 5분간 마침

□ 내 용

- * 장재승 위원장으로부터 위원들의 회의 안건 순서결정에 대하여 가부를 물어 원안대로 진행함을 동의를 얻어 사업관련 전반적인 회의 자료를 토대로 하여 김정민 간사가 브리핑하며 설명을 함(약20분)
- * 사업 브리핑 후 장재승 위원장의 사업에 대한 부연설명도 진행함.

* 이하 존칭 생략

- 위원장 : 위원님들 센터 및 사업 관련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 이영민 : 판촉물 사업단 디자인과 마케팅 교육은 외부 강사가 와서 교육을 진행 한 것인가요? 내부 강사가 교육을 진행 한 것인가요? 자활기업을 나갔으면 이제 홍보 부분도 필요 할 것 같고 홈페이지 제작도 따로 해야 하지 않나요?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요? 제품 설명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세부 디자인도 이분들이 다 올리는 건가요?

- 간 사 : 관련업종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진행을 했었고 기업을 나가기 전에는 일러스트와 포토샵을 기본적인 것 밖에 진행을 하지 못했지만 교육을 받고 나서 기본적인 디자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굿 앤 기프트의 경우 사업단에 있을 때부터 홈페이지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해오름 기프트의 가맹점으로 들어가 있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가맹을 맺고 있는 업체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제품설명과 소비자가 볼 수 있는 세부 디자인도 해오름 쪽에서 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 박상신 : 판촉물 사업단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사업단이 아닌가요?

- 위원장 : 기존에 있던 사업단들의 경우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면 사업단에 있던 거래 업체를 다 들도 나가기 때문에 사업단을 접고 새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초창기에는 현수막 사업단으로 시작을 하였고 판촉물 사업단으로 운영하다가 세 번째로 운영하는 사업단이었습니다.

- 이영민 : 요즘 오프라인 매장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판로를 넓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탁물 사업의 경우 편의점과 연계를 맺어서 편의점에서 세탁물을 접수 받고 세탁업체가 와서 찾아가고 완료된 세탁물을 가져다 주면 다시 손님에게 세탁물을 주는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 아웃소싱을 활용하여 주변지역 업체 몇 개 연계 맺고 연락이 오면 찾아와서 사업하고 중간 마진을 먹는 사업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신 : 건의 사항이라고 할까요. 지금 자활에서 나가서 성공한 케이스가 꽤 있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 분들에 대한 사례집 같은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매번 합니다. 자활의지의 고취도 있겠지만 그 사례집을 통하여 각종 자원 모집 및 활용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등촌자활에 대한 홍보도 및 이미지가 좋아지는 효과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 저번 운영위원 회의 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고민을 해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 1년 단위로 성공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발간하는 부분이 어떤 차별화가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 이영민 : 요즘 유튜브 시대이다 보니 인쇄물로 제작하는 부분이 아닌 같은 정보를 갖고 스토리텔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전세계인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서등촌 지역자활센터의 채널을 만들어서 캠코더나 카메라를 갖고 찾아가는 성공사례 등 짧게라도 올리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삭제 하지 않는 이상 영원히 보관하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제작 할 때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짧게라도 제작 해 봤으면 합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교육을 진행 하고 있기 때문에 제작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교육을 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상신 : 사회복지 쪽을 쪽 보면 어떤 딱하고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 후원을 받기 위해 TV에서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자활에서는 이런 분들을 자활시켜놓고 성공 사례에 대한 홍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공사례에 대한 홍보가 효과가 클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이영민 : 사회복지 기관에서 뻔 한 내용이 아닌 자활만의 특성을 살려서 스토리텔링을 하여 동영상을 만들면 인식의 전환도 되고 식상하지 않은 홍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말씀해주신 홍보 방법에 대해 직원들과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영민 : 의류수선 사업단의 경우 가족에 대한 수선도 진행을 하고 있나요?
- 위원장 : 미싱기계가 가족이 수선이 가능하게 셋팅이 된 부분이 아니라 의류만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 이명호 : 자활센터 2019년 추경 예산에 자활근로 사업 전용에 대한 부분도 보이는거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위원장 : 각 각에 자활근로 사업단 같은 경우 연초에 사업비가 측정되어 진행되어 지고 있는데요 9월부터 복지부에서 인원 확대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사업단에 인원이 확대 되는 부분이 생기면서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전용을 진행하여 좀 더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전용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명호 : 센터 예산에서는 시설비가 금액이 많이 늘어 난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참여 주민증대와 연관이 있을까요?
- 위원장 : 센터 예산에서는 직원 변동에 대한 부분과 더불어 말씀해주신 참여주민 분들에 증가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진행하여 좀더 쾌적한 근로 환경제공을 위해 시설비를 확대 했습니다.
- 박상신 : 사회적 기업으로 나갈 경우 1억원정도 지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활기업 출범할 때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을 하게 되면 지원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파악해서 활용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자활에서는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참여자 분들이 창업을 할 때 외부 자원의 정보를 파악하고 활용을 해보라는 말씀으로 듣고 정보를 파악해서 활용 및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혹시 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것으로 2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참석위원 전원과 위원장의 폐회 제의로 폐회를 선언하니 오후 12시 30분이 되다.

■ 3/4분기 회의 결과

안전번호	안 건	결 과
1	2019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3/4분기 사업단별 현황	보고
2	2019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예산 추경	보고
3	2019년 서울강서등촌지역자활센터 기타 특이사항	보고

상기 회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참석 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2019년 11월 4일

위원장 : 장 재 승

위 원 : 박 상 신

이 명 호

이 영 민

이 태 호

간 사 : 김 정 민